

포도·밤 농가들 잇단 폐업 FTA 농업 구조조정 본격화

10~40% 폐업지원금 신청

◆올해로 9회를 치른 담양고서포도축제 가 그 명맥을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에도 치르겠지만,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포도작목반 97농가 가운데 30여 농가가 고서면사무소에 FTA 폐업지원금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철라산에 이어 미국산, 페루산까지 국내시장 장악에 나서 국내산 포도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만 9000ha에 달했던 국산 포도 재배면적은 2014년 1만6000ha로 감소했다.

◆전남 밤 생산량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양지역 밤 생산농가들도 '폐업지원신청'을 속고하고 있다. 오는 9월 4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다담면사무소 등에는 문의전화기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보상금액이 낮아 30일 현재 단 1곳만 폐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수입 밤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밤 생산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부 과수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발 농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포도 등의 생산농가들의 '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9월 18일까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아 전산입력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까지 지원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면사무소, 시·군 사정으로 늦춰지면서 신청 농가도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이며, 이 가운데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품목은 체리,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로 선정됐다.

특히 폐업 지원 대상은 지난 2014년 1개 품목(한우)으로 비교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포도 등 과수가 포함되면서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폐업 지원금은 포도의 경우 m당 5895원, 체리 m당 3314원, 밤 ha당 249만6420원 등이 유력하다.

전남도는 도내 779포도농가(292ha) 가운데 30~40%, 3196밤농가(6202ha) 가운데 10% 정도가 폐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 포도 주산지인 담양군의 경우 30일 현재까지 137농가 중 34.30%에 해당하는 47농가가 폐업 지원을 신청했다. 광양시의 경우 낮은 보상금액으로 인해 1842농가 가운데 아직까지 신청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어 각 작목 별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포도와 밤의 경우 최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흥겨운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

2015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30일 브라질 공연단 '에스콜라 알레그리아' 단원들이 흥겨운 삼바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꿈에 그리던 황해도 고향 땅 밟을 날 올까요?”

1953년 월남 정착한 실향민촌 진도군 군내면 안농마을 주민들 남북 내달 7일 적십자회담 합의 이산가족 상봉 이뤄질까 큰 기대



최근 '농촌 리모델링지구'로 선정돼 분홍색으로 지붕을 개량한 진도 안농마을 전경.

“남북이 서로 만나 손을 맞잡고 경제협력력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측의 회담제에 북측이 하루 만에 호응해 오는 9월 7일 판문점에서 마주 앉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0일, 실향민이 모여 사는 진도군 군내면 안농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안농마을은 지난 1953년 7월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의 섬마을인 초도에서 내려온 실향민 동네다. 이미 피난 1세대는 세상을 떠거나 타지로 나갔고, 2, 3세 32가구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

이 마을 이장 안재영(80)씨는 담담하지만 희망찬 목소리로 회담 소식을 반겼다. “남북이 대립하고 전쟁을 벌였다가는 또다시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

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남한과 개방이 안 돼 주민이 고생하고 있는 북한이 손을 잡고 힘을 모은다면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대에 부풀었다.

열 아홉 살 때 부모를 따라와 안농마을에 정착한 안씨는 80이 됐지만 아직도 고향마을 기억이 생생하다. 어렸을 적 동네 친구들과 먹을 감았던 실개천이며, 마을 골목길까지 살살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안농마을 사람들은 황해도 한 마을에서 한꺼번에 내려와 친척이나 마친가지다. 남북이 DMZ 지뢰폭발 사건으로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을 때는 친형제마냥 밤낮으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지난 25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안농사람들은 이어 회담 성사에 미소를 되찾았다.

안 이장은 “남측이 그동안 북을 도왔던 것을 생각해 북한도 진정한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민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 나서 고향 땅을 밟아보고 눈을 감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자유를 위해 고향을 등져야 했던 안농마을 사람들은 역적같이 눈발을 일구고 가족을 길러 이젠 잘 사는 마을로 탈바꿈했다. 특히 지난 7월 초순 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 주거 환경이 정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농촌마을 리모델링지구'로 선정돼 국비 20억원 31억원을 투입해 마을기반 정비, 주택 에너지 효율화, 주택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다. 안농마을은 마을 노후 주택의 지붕을

분홍색으로 개량해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됐다. 또 마을회관 및 공동 생활화, 공동창고와 유타를 지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내달 7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에 곧바로 29일 이를 수락해와 추석 이산가족 상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북이 지난 25일 극적으로 타결한 고위당국자 접촉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은 통상 적십자 실무접촉으로부터 한 달 간격을 두고 진행돼 왔기에 이번에도 추석(9월 26~28일)을 넘겨 10월 상순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새정치, 선거인단 일반국민 참여 늘린다

現 '국민 60%·권리당원 40%'

비노계 반발...혁신위 결정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일반국민의 참여를 현재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30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 공천를 세심안을 마련 중인 당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이루고 선거인단 비율 손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일반국민 60%, 권리당원 40%'로 규정돼 있다. 과거에는 국민과 당원의 비율이 5대 5였지만, 지난 4월 공천혁신추진단이

이처럼 수정했다. 여기에 혁신위는 국민참여 비율을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여기서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혁신위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구성비율 설문도 진행했다. 여기서 혁신위가 제시된 안은 국민참여 비율을 각각 60%, 70%, 80%, 90%,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었고, 현재보다 국민참여 비율을 줄이는 선택지는 없었다.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혁신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금) 문의 (062) 605-1114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점사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20225-0001

정부지원 표준 연비 및 환산 E 200 199km/L, 1.639kg, 7G-TRONIC PLUS, 배당연비 12.2km/L(도시상행) 10.5km/L, 3.145도(외도) 14.4km/L, 3.89도, 배당CO2 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90kg, 7G-TRONIC PLUS, 배당연비 16.3km/L(도시상행) 14.2km/L, 3.145도(외도) 19.8km/L, 1.89도, 배당CO2 배출량 120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배당연비 14.1km/L(도시상행) 12.4km/L, 3.145도(외도) 17.0km/L, 2.89도, 배당CO2 배출량 140g/km • E 300 3.496cc, 1.790kg, 7G-TRONIC PLUS, 배당연비 9.7km/L(도시상행) 8.4km/L, 3.145도(외도) 11.0km/L, 4.69도, 배당CO2 배출량 183g/km • E 300 4MATIC 3.496cc, 1.800kg, 7G-TRONIC PLUS, 배당연비 9.1km/L(도시상행) 8.0km/L, 3.145도(외도) 10.9km/L, 5.89도, 배당CO2 배출량 190g/km • E 350 BlueTEC 4MATIC 2.987cc, 2.049kg, 7G-TRONIC PLUS, 배당연비 12.4km/L(도시상행) 11.2km/L, 3.145도(외도) 14.7km/L, 3.89도, 배당CO2 배출량 150g/km • E 400 4MATIC 2.996cc, 1.935kg, 7G-TRONIC PLUS, 배당연비 9.3km/L(도시상행) 8.1km/L, 3.145도(외도) 11.5km/L, 5.89도, 배당CO2 배출량 190g/km •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배당연비 17.4km/L(도시상행) 16.0km/L, 3.145도(외도) 9.3km/L, 5.89도, 배당CO2 배출량 230g/km ※ 본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이며 도시상행, 외도상행, 저속상행 및 고속상행 등에 따라 상우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